

18년 지나 출생신고...사회안전망 무용지물

뉴스 분석 7남매 학교 안 보낸 부부

광주에서 10남매를 둔 40대 부부가 자녀 7명을 취학시키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출생(병원, 조산원)-출생신고(행정기관)-취학(교육청)' 단계를 잇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의무자(부모 등)에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는 것 외엔 이렇다할 강제 수단을 두지 않은 탓에 '세상에 있지만 없는 아이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기본적인 초·중학교 의무교육조차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한다. 범죄에 희생되더라도 이를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또 취학 적령기(만5~6세)가 지나면 취학아동명부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법규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광주시 남구와 남부경찰 등에 따르면 남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A(44)씨 부부가 자녀 10남매 중 둘째(25)부

'세상에 있지만 없는 아이들' 의무교육도 못받고 방치 출생-출생신고-취학 연계하는 전산시스템 구축 시급

터 여덟째(13)까지 모두 7명을 취학시키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교육당국과 행정기관을 당혹하게 하고 있다.

부부는 지난 1998년 충북 청주에서 사업에 실패하고 사채 빚에 쫓겨 전국을 돌아다니느라 자녀들(다섯째~여덟째)을 제때 출생신고하거나 학교에 보내지 못했다고 뒤늦게 조사에 나선 당국에 설명했다.

하지만 A씨 부부가 자녀를 병원이나 조산원에서 낳았다는 점에서 의료기관과 행정기관, 교육청을 연계한 일원화된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출생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자녀 4명을 최대 18년 이상 뒤늦게 출생신고한 A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과태료 5만원 부과가 전부여서 부모가 의도적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상에 있지만 없는 아이들'이 돼 국가의 보호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조산원,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출생사실을 행정기관에 전산 통보하고 정해진 기한에 부모 등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관계당국이 사실 확인에 나서고 취학 적령기가 되면 학교 입학에 통보하는 방식 도입을 검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A씨 부부의 '세상에 있지만 없는 아이들'처럼 제때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데도 누락되는 일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점에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도 불가피해 보인다. 현행 초중등교육법(15조)에 따르면 만 6세가 되는 시점에 읍면동장이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해 교육청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다만 만 6세를 기준으로 ▲만 5세 조기입학 신청자 ▲전년도 입학 연기 대상자 ▲신규 전입자 중 만 6세이거나 조기입학 대

상자, 입학 연기 대상자도 통보 대상이다.

A씨 부부가 지난 2006년 광주 남구에 주민등록을 재등록할 당시 10세, 12세, 14세였던 둘째~넷째, 지난해 4월 4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출생신고할 당시 12세~18세였던 자녀들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일정 부분 혼선을 가져왔다는 지적도 나왔기 때문이다. 관계당국은 취학아동명부 작성 대상자에 '취학적령기가 아니어도 의무교육을 받지 않은 사실이 새롭게 확인된 자'라는 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대책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형편이 어려운 가정, 의도치 않게 출생한 한 남매들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아이의 안전문제와 함께 교육문제에도 커다란 구멍이 생긴다"면서 "경우의 수가 많지는 않지만 복지, IT강국을 표방하는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라도 의료기관, 행정기관, 교육기관을 아우르는 시스템 마련을 검토해야할 시기"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공유장터' 북적 지난 2일 광주시 북구청 광장에서 열린 '우리두리 공유장터' 행사를 찾은 시민들이 진열된 물품을 둘러보고 있다. 이날 행사는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물건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5평 단칸방 9명 생활...빚 때문에 7남매 학교 안보내

자녀 미취학 이유는 2월 교육급여 신청하며 드러나 자녀들 학대 정황은 없어

광주에서 10남매를 둔 40대 부부가 자녀 7명을 초등학교에조차 보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경찰과 교육청 등 관계당국이 경위 파악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다.

3일 광주시 남구와 남부경찰에 따르면 광주에 사는 A(44)씨 부부의 자녀 10명 가운데 7남매가 학교에 다니지 못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월 A씨 부부가 관할 동주민센터에 4명의 자녀에 대한 교육급여 신청을 한 것을 학교 측이 지난 3월 실제 학적부와 대조 작업을 하면서 알려졌다.

한 출생신고가 지난 2014년에서야 이뤄진 사실도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A씨 부부는 방 1칸, 거실 겸 부엌으로 된 비좁은 주택에 스무 살 된 넷째 딸부터 올해 학교에 입학한 열째 딸까지 모두 7남매를 데리고 살았지만 부모에 의한 자녀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조사에 나선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구청, 교육

청 등은 한목소리로 전했다.

중학교를 중간에 그만뒀지만 검정고시로 고졸까지 마친 첫째 딸(27), 학교 문턱에 못 가본 둘째 아들(25), 셋째 딸(23) 등 성인이 되면서 집을 떠나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 3명 모두에게도 부모에 의한 학대 정황은 없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법에 따라 의무교육 대

상자인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처벌할지 여부를 검찰과 협의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부부는 자녀들을 제때 학교에 보내지 않은 점에 대해서 사업에 실패해서 전국을 떠돌아다니느라 여유가 없었다는 입장"이라면서 "몸져누운 남편 대신 부인이 홀로 식당에 일 나가 번 돈으로 힘겹게 가족을 부양하면서도 비교적 단란하게 살아온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 광주 '미취학 7남매' 교육지원 대책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막내
출생 신고	정상 출생신고, 98년 주민등록 말소·06년 재등록	2015년 뒤늦게 출생신고					06·09년 정상 출생신고			
취학	중학 중퇴	취학 사실 없음					초교 재학			
교육 지원	검정고시			대안학교+검정고시			초교 편입			

초등학교 편입...주택보증금·후원 등 지원 검토

관계기관 대책은

미취학 7남매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계기관이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광주시교육청은 13세가 된 일곱째와 12세가 된 여덟째를 각각 초등학교 6학년과 5학년에 입학시키기로 잠정 결론지었다.

둘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초 학력 테스트 결과 다소 부족함은 있지만 학교 과정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섯째(19)와 여섯(16)째는 대안학교에 다니게 하면서 검정고시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성인이 된 둘째(24)부터

넷째(여·20)에 대해서도 그들이 원한다면 검정고시를 치를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측은 주택 보증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어린이들끼리 결연 후원제도를 통해 매월 5만원~1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밖에도 관계기관은 아동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건강검진 지원, 대학생 멘토를 이용한 학습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목포서 슈퍼마켓 2인조 강도...아내 숨지고 남편 중태

노부부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에 침입한 2인조 강도가 흥기를 휘둘러 아내가 숨지고, 남편은 중태에 빠졌다.

3일 목포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6분께 목포시 산정동 한 슈퍼마켓에서 A(73)씨·B(여·68)씨 부부가 흥기에 찔려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 경찰과 119에 신고했다. 아내 B씨는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남편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있다.

40~50대에 키가 170~175cm가량으로 보이는 용의자들은 모두 검은색 등산

복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각각 빨간색과 아이보리색 모자를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명은 몽둥이 한 개를 들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직후 금품을 뒤진 흔적이 있다"며 "용의자들이 고속버스를 통해 광주로 이동한 것으로 보여 광주경찰과 공조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슈퍼 인근 골목길에서 CCTV화면을 확보해 분석하는 등 용의자의 행방을 찾고 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면허정지 피하려 음주 광란 질주...난폭운전으로 끝내 면허취소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몰고 달리던 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시내 도로에서 30여분간 광란의 질주를 벌인 50대 남성에게 난폭운전 혐의가 적용되면서 면허취소 처분.

○...3일 순천경찰에 따르면 이모(53)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9시에 순천시 조례동 한 도로에서 조모(43)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뒤 '차를 세우라'는 조씨의 요구를

무시하고 30여분간 40km를 달아난 혐의.

○...이씨는 조씨를 때리기 위해 최고 시속 130km의 속도를 내는가 하면 지그재그 운전을 일삼았는데, 경찰은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6%로 면허정지(벌점 100점) 수준이지만 난폭운전 벌점(40점)이 더해지면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누적벌점(1년간 121점)을 넘겨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

/순천=김은종기자 ejkim@

20년 노하우

미래형 투자 컨설팅 **지오옥션 /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 (주)**

고객 맞춤형 투자 추천!! 전지역 부동산 신속한 책임중개상담

지오옥션 경매 컨설팅

경·공매 NPL 컨설팅 전문업체
20년경력의 부동산 컨설턴트 성실한 상담

- ★ 공장 나주시 오랑동 단층 및 2층공장, 대지5,735㎡ 건물3,965㎡ 동수오랑농공단지내 ▶감정가 34억6천7백, 최저가 15억5천5백 (감정가의45%)
- ★ 공장 화순군 동면 단층 및 2층 미국공장, 대지6,844㎡ 건물4,885.8㎡ 연동마을서쪽인근 ▶감정가 13억2천5십만, 최저가 4억7천3백 (감정가의36%)
- ★ 공장 전북 순창군 순창읍 교성리 전통식품공장, 대지7,940㎡ 건물3,502㎡ 단층 및 3층 ▶감정가 24억9천4백, 최저가 4억2천 (감정가의17%)
- ★ 근린주택 광주 광산구 운남동 먹자골목이퍼즈점문, 대지234㎡ 건물656㎡ 지하~지상3층건물 ▶감정가 7억5천3백, 최저가 7억5천3백
- ★ 나주시 경현동 지하4층~지상3층 연수원건물, 대지1,488㎡ 건물2,075㎡ 경한리유원지부근 ▶감정가 30억6천5백, 최저가 8억7천9백 (감정가의29%)

※ 전지역 병원, 사무나 매매, 매입 상담 ※

미래형 투자 컨설팅 지오옥션
대표 조여사 010-6211-4585

G.O. Auction

채용 공고

- * 경매투자에 관심있는분
- * 부동산 배우면서 일할분
- * 공인중개사
- * 열정과 소신이 있는분
- *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분
- * 자격증 소지 무관

지금 도전하세요!!
T. 062-714-2251

지오옥션 부동산중개법인(주)

수익성 부동산 다량 보유

- ★ 광산구 옥동 평동역부근 근린시설용지 ▶ 기업은행위 대지 479㎡, 매매 5억8천만(조정가)
- ★ 동구 학동 일반상업지구 대지 136㎡ 웰빙건전랜드부근 ▶매매 2억2천만(조정가) 현 주차장
- ★ 숙박시설 광주 서구 쌍촌동 지하~지상5층, 대지 298.8㎡ 건물 1206.4㎡ 쌍촌역인근 ▶감정가 12억2천5백, 최저가 5억5천 (감정가의45%)
- ★ 주택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전원주택, 대지 1610㎡ 건물 217㎡ 2층주택 지대높음 ▶감정가 3억5천6백, 최저가 2억4천9백
- ★ 의료시설 장성군 삼서면 상무대 입구, 대지 11,546㎡ 건물 5,733.24㎡ 대로변 ▶감정가 48억8천6백, 최저가 48억8천6백

※ 전국 물건 매입 ※

지오옥션 부동산중개법인(주)
대표 공태풍 010-3820-8151

T. 062-714-2251

NPL채권 전국 물건 상담
이주원 국장 010-7171-7610

권리분석, 수익성 상담
강천구 이사 010-6838-6008